

The Effects of Perceive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in Primary School Children

Yoo Yang-gyeong · Lee Eun-ji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the correlation between both variable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chool adjustment in primary school children.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69 primary school children. Each participant consented to complete a structured questionnaire of 30 items to measure self-esteem(3-point) and 30 items to measure school adjustment(3-point).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PSS/WIN 12.0.

Results: The degree of the school adjustmen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Therefore, female children had more higher school adjustment than male children. The degree of the self-esteem and the school adjust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was 'self-esteem' which explained 61% of the variance($p < .001$).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tensifying the self-esteem of the primary school children would be way to help the school adjustment of these. To intensify self-esteem of these, it needs to be developed and applied not only program associated with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se, but also training program for teacher by multidirectional approach.

Key word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primary school children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양경* · 이은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 269명으로 이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으며,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적응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대상의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물론, 교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초등학생

*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 전주미술치료교육센터 소장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는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환경이며 사회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agent of socialization)이다(최은미, 2007; 김수인, 2010).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이 시기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전반적인 적응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박은영, 2011; 윤지인, 최범식, 2009; 최은미, 2007).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 환경에 바람직하게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인, 2010). 따라서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이어짐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훗날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특히 현대사회처럼 지식·가치관·행동 등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정은주, 2005),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및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

성되어 개인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서나라, 2006). 반면에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은 학교에 대한 적대감이나 공포감, 경쟁의식 및 실패감이 누적되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김경옥, 2006; 김중배, 권중돈, 1998).

2012년 4월 현재 한국의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업중단율은 전년 대비 비슷한 현황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사유 중 학교부적응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2).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부적응의 기저에 자아존중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고(정환구, 2003),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 중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개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Mack과 Abon(1985)은 자아존중감의 성취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성취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까지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일단 아동기에 발달하면 일생을 통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발달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청년기와 성인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차유림, 2001). 따라서 아동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고교의 학교생활은 물론 성인기의 사회적응에 필수적인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서나라, 2006; 최보가, 전귀연, 1993).

또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아동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므로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보이게 되어 학교에 대한 적응력 또한 우수하다고 하였다(김기에,

이소은, 2005).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학대, 열등감, 무가치, 우울, 동기부족, 자기불만족, 자기부정 등 부정적 사고와 소극적 행동으로 학교부적응, 폭력 및 일탈 행동 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석기, 2011).

지금까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학생의 학업 성취를 비롯한 인지적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었다(이경님, 2008).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존감이나 또래, 또는 교사와의 관계 등 심리사회적 변인을 주된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학교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복합개념으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김아영, 이명희, 2008).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로 학교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사회·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문미숙, 2011).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아동의 성격 발달과 정신건강 및 인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확인하고 학교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대한 확인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다.
3.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및 경상도 소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아래 기준에 적합한 269명을 표집하였다.

대상 학생은 한글 해독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에 동의한 아동과 부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연구에 참여함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 가능성은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연구가 종료된 이후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2. 측정 도구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존감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전규혁(1999)이 번역하여 재작성한 것과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연구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존감, 사회적 자존감, 가정적 자존감, 학업적 자존감의 4개 하위변인과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의(3점)' '모르겠다(2점)' '부동의(1점)' 으로 측정된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점은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본 연구에서 .841로 나타났다.

나. 학교적응

학교생활 적응력 검사도구는 Long과 Henderson(1971)의 행동평정척도 (behavior rating scales)로서, 백규한(2002)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검사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 준수 및 학교에 대한 만족감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의(3점)' '모르겠다(2점)' '부동의(1점)' 로 측정된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점은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

음을 의미하며,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본 연구에서 .847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본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현직교사 7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총괄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들과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 관련 제반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읽어주거나 학생 스스로가 읽고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고, 총 269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입할 독립변수들 중 명목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한 다음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76.6%)이 2/3 이상을 차지하였고 성별은 남자(51.3%)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된 학년과 성별 중에서 성별($t=-3.867, p<.001$)에서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적응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Differences of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Mean±SD | t | p |
|-----------------|---------------|-----------|-----------|--------|-------|
| Grade | Second grader | 63(23.4) | 2.31±0.32 | -1.682 | .094 |
| | Third grader | 206(76.6) | 2.39±0.29 | | |
| Gender | Male | 138(51.3) | 2.30±0.32 | -3.867 | <.001 |
| | Female | 131(48.7) | 2.44±0.25 | | |

2.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36(±0.28)점으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고, 학교적응은 평균 2.37(±0.30)점으로 나타나 역시 중간정도의 학교적응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th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subjects
(N=269)

| Variables | n | Min. | Max. | Mean±SD |
|-------------------|-----|------|------|-----------|
| Self-esteem | 258 | 1.43 | 2.90 | 2.36±0.28 |
| School adjustment | 261 | 1.37 | 2.93 | 2.37±0.30 |

3. 대상자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r=.779$, $p<.001$)를 나타내어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N=269)

| Variables | School adjustment |
|-------------|-------------------|
| | r (p) |
| Self-esteem | 0.779(<.001) |

4.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인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이분변수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적

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서 6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N=269)

| Independent Variables | B | SE | β | t | p | Partial R ² | Model R ² |
|-----------------------|------|------|---------|-------|-------|------------------------|----------------------|
| (Constant) | 0.41 | 0.10 | | 4.13 | <.001 | | |
| Self-esteem | 0.83 | 0.04 | .78 | 19.70 | <.001 | .61 | .61 |

IV.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된 학년과 성별 중에서 성별($t=-3.867, p<.001$)에서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적응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경옥(2006)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전반, 수업 일반, 특별활동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과나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 성향을 분석한 결과 $F=13.32, p<.001$ 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 성향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영재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성희(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도가 남학생 3.54, 여학생 3.49로 보통 이상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교생활 적응도의 하위영역 중 교사관계에서 남학생 3.49, 여학생 3.36으로 남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824, p<.05$)를 보임으로써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교사관계 영역의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관계를 제외한 학교생활 적응도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남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점과 상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부의 선행연구는 영재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이 본 연구 대상자와 상이하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규모로 표집하여 조사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초등학교 6년의 기간은 성장과 발달상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저학년, 중학년 및 고학년 등으로 이 기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r=.779, p<.001$)를 나타내어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r=.556, p<.01$)과 일반가정 아동($r=.601, p<.01$)의 자존감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보고한 이운호(2009)의 연구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조손가족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48, p<.01$)이 있음을 보고한 황민자(2011)의 연구,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자존감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57, p<.01$)이 있음을 보여준 김경옥(200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인 다문화가정 아동(251명)과 일반가정 아동(235명)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 각각 $r=.47, r=.59$ 의 정적 상관($p<.01$)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친밀해지고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함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수인(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514, p<.01$)을 보여주었던 최은미(2007)의 연구, 이혼가정 청소년의 자존감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r=.476, p<.001$)을 보인 원한새의 연구(2006)와도 유사하였다. 이외에도 초등학교생은 아니지만 여고생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는 $r=.42, p<.0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자존감이 높은 여고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경희(2011)의 연구 및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들 중에는 자아존중감($r=.205, p<.001$) 변인이 포함되었다고 보고한 이진이(2010)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을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므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고진영, 이경화, 2001)고 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자아존중감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많은 아쉬움이 있기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개인적·심리적·사회환경적 변인들을 폭넓게 다루는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서 61%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beta = .433$) 다음으로 자존감($\beta = .310$)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존감($\beta = .357$)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윤호(2009)의 연구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조손가족 아동의 자존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beta = .68$)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황민자(2011)의 연구 및 이혼가정 중 모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자존감($F=19.52, p<.001$)이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정 청소년 개인의 자존감이 높을 때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한새(200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진이(2010)의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자존감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여고생의 자존감($\beta = .17, t=3.249, p=.001$)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이경희(2011)의 연구, 한부모 가족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존감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은미(2007)의 연구 및 초등학교 3, 4, 5, 6학년인 다문화가정 아동(251명)과 일반가정 아동(235명) 모두에서 개인특성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중

요한 예측변인이었음을 보고한 김수인(2010)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는 가정생활과 초등학교 생활 및 이후의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문미숙, 2011)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렇듯 자존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안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 대상의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물론, 아동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등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도 및 경상도 소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69명이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 학교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교적응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는 가정생활과 초등학교 생활 및 이후의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을 대규모로 표집하여 조사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초등학교 6년의 기간은 성장과 발달상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저학년, 중학년 및 고학년 등으로 이 기간을 좀 더 세분화 해서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좀 더 다양한 개인적·심리적·사회환경적 변인들을 폭넓게 다루는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아동 대상의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물론, 교원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의 글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준 초등학생들에게 감사 드리며, 자료 수집을 위해 힘써 주신 강정순 선생님, 이오남 선생님, 하선옥 선생님, 배점옥 선생님, 오인남 선생님, 이민정 선생님 그리고 최차순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참고문헌】

- 고진영, 이경화(2001). 유아·아동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특성 탐색. 한국 영유아보육학, 25, 327-351.
- 김경옥(200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예, 이소은(2005). 장애부모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학교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35-46.
- 김수인(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이명희(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구조와 학교급 간 차이. 한국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은경(2005). 아동의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 적응 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숙(201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백규한(2002). 목표 지향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분석.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나라(2006).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한새(2006). 이혼가정의 양육 부모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 적응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인, 최범식(2009). GMIP심상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27-146.

- 이경님(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경희(2011). 여고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존감, 우울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기(2011).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이(2010).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자녀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규혁(1999).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구(2003). 명상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중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유림(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은미(2007).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교육기본통계.
- 한성희(2002). 영재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민자(2011). 조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초등학교 4, 5, 6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

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1), 145-153.

Mack, J. E., & Abon, S. L.(1985). *The development and suste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